

14th of August Sermon

Isaiah(이사야) 5:1-7, Luke(누가복음) 12:49-56

여러분이 시드니의 대주교라고 잠시 동안 상상 해봅시다. ABC 공영 라디오 방송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올 한 해의 Boyer 강의(호주 ABC 라디오 방송에게 시리즈로 하는 방송)를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Boyer 강의들은 여섯 강의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 6 주 동안 일요일 마다 전해 집니다. 올 해에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맡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강의를 모은 작은 책자가 ABC 판매점들과 Dymocks 서점을 통해서 판매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초청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여러분은 8 월에 관련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Boyer 강의를 요약한다면 그 강의들의 주제로는 주요 사회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문제점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과 같은 저명한 호주인 들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 총리들, 건강 전문가들, 장군들, 역사가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작가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리즈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요 인물 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신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대중평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 회중들과 또는 교회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관중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현재 호주에 거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의 관중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 하라는 요청을 받은듯합니다. ABC 방송은 여러분이 종교적 신앙의 빛으로 현재의 세대를 해석 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원회에서 누가복음 - 특별히 오늘 아침 성경 본문을 도청 시스템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강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에 대해 6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Boyer 강의 시리즈를 위해서 여러분은 ABC 라디오에 어떤 6 가지 문제점 들을 연설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그 초청, 그 요청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 하시는 만큼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5 년 Peter Jensen께서 시드니의 성공회 대주교였습니다. 49 년의 역사가운데 그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대표로서 이 강의를 하시기 위해 초청을 받았습니다. Jensen 은 “예수님의 미래”라는 주제를 선택 하셨습니다, 그가 의미 하는 것은 여기 호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신앙의 전망은 무엇 인가입니다. 그 주교는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되어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 그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잊혀져 갔습니다.

아마 우리는 Jensen 이 현재 시기를 해석하기 위해 찾고 있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의 효과와 함께 만약 제가 이 강의에 요청을 받는다면 저는 한 두 가지 다른 주제를 선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하는 밤에는 크로눌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동과 분열이 불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첫째 날 밤 전 오랫동안 알아차릴 수 있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Boyer 강의에 Peter Jensen 이 강의를 할 때 서로에게 관계되는 다른 신앙들과 문화들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서 초청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가의 전통을 따라서 시대의 징조들을 읽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 그리고 아마 그것들 중에 하나는 현대 삶에 두려움의 장소 중에 하나일 것 입니다; 젊은 사람의 국내 급진주의에 의해 발생한 두려움은 거의 중요 하지 않습니다 - 특정한 정치적 정당의 발언, - 북한이 행동하고 있는 방식 - 미디어에서 언론 되는 해외 테러 사건들; 그것은 마치 두려움은 우리 시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두 군데 다 공포와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고통과 사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자 이제 Boyer 강의를 요청 받은 것으로 돌아가봅시다. 저는 만약 군중들에게 언급된 것이 어떤 날씨가 바람의 방향을 따를 것인지 정확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상기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바람은 서쪽에서부터 습기를 운반해서 지중해로부터 갈릴리를 건너서 비를 만듭니다; 남쪽으로부터의 바람이 사막 바람이 되고 그리고 그 바람은 찌는 듯이 덥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앞서서 1 세기의 생태학에 심취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는 몇 년 전 호주의 최고 학교였던 기후 연구소 출신인 Tim Flannery 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산화 탄소 방출관한 탄소 세금과 이산화 탄소 흡수계에 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는 또한 해수면 상승, 얼음이 녹음으로 오는 공백들과 빙하들; 성경 어디에도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 산호 표백과, 인구 압력과 바다의 산성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후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왜? 어떻게? 우리는 시대의 징조중의 하나인 현재 기후에 대한 염려를 신앙의 관심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야 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ABC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Boyer 강의에 다음 시리즈를 부탁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기후에 대해서 연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전통은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가 부르는 과거의 찬송가들은 이세상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 지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 보다 도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 그리고 이 세상 그 자체는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창세기 일장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이 아주 좋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마치 시편기자가 어떻게 바다가 외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의 손뼉을 치는지 결코 이야기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마치 골로새서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 하시는지 편지를 결코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보기 위해서 초청받았고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잊은듯합니다 그들은 최초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한 이 새로운 시대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몇 주전에 저는 투발루에 갔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투발루 티스 공화국은 태평양 적도남쪽에 9 개의 섬으로 펼쳐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26 스퀘어 킬로미터 보다 작은 땅에 약 15,000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겨우 해발 4 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이웃인 키리바티(Kiribati)인들은 광산 안에 있는 카나리스 새들과 같습니다: 전세계는 해안가에 있는 취약한 작은 섬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 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람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는 예전처럼 많이 오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산호 아래에서 콤콤 솟아 오릅니다; 그들의 깨끗한 물이 점점 짠맛을 냅니다; 거대한 조수들은 밀려들어 좁은 땅을 빼앗아가고 테러의 순간을 만듭니다; 때때로 가장 작은 아이들은 바다에 뜨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 상자 안에 둡니다; 농작물은 더 이상 재배되지 않습니다 - 이 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 오직 하나님 만이 어디 인지 아십니다 - 강요 받기 전에는 그것이 단지 석회의 문제 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해수면 상승과 기후는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부분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그들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 날지 궁금해 합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절규 입니다 물론 기후 변화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버려두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불확실한 큰 문제입니다.

이 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기독교 인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중 몇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들을 물로 침수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대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탄소 발자취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세상에 부유한 나라를 바라보며 단순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여러분의 이웃이 아닌가요?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 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다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ABC로부터 우리시대의 징조에 대해 조언 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Boyer 강의를 여러분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전 캐빈러드 (Kevin Rudd)가 우리 시대 도덕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라고 선언한 것을 아실 것 입니다. 한가지 그가 옳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 그들이 동의한 것은 녹색을 띤

것이 변형 될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역전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샤리 맥파그(Sallie McFague)는 우리는 창조가 아닌 것을 만들어 내는 것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제안 합니다.

저는 과거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우리는 부유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돼지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데”. 이 시기의 이순간을 두고 신학적 주장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 지이 이다).

어떻게 이 땅의 시스템이 우리 인간들의 존재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지 스스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던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역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이 있는지,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모양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얼마나 그것이 위험에 빠져 있는지 증인이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Boyer 강의를 기대합니다.